

『雜記古談』의 科學談 양상과 특징*

김경**

【목차】

1. 들어가며
2. 『雜記古談』의 科學談 양상
3. 『雜記古談』의 科學談 특징
4.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科學의 실상과 문화적 배경을 살피기 위해 任邁의 『雜記古談』에 담긴 科學談에 주목하였다. 『잡기고담』은 24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10개의 일화가 과거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거담에는 과거와 관련된 사회적 구조나 정치적 배경 등이 담겨 있는데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몰락양반 서자 평민과 같은 계층의 응시를 통해 명분보다는 생계를 우선시하는 점과 과거를 통한 출세의 욕망이 오히려 공고화되는 경향을 담고 있다. 이는 신분제의 혼濁화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와 윤리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선비로서의 명분과 현실 대응 사이에서 균열된 틈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儒生과 校生의 관계를 통해 조선후기 지방 교육을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代述을 통해 과거 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흐름에서 부정행위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同接끼리 공동 답안 작성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알 수가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양반 계층에서만 이해되어왔던 應試文化를 평민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서울 중심으로 한 응시문화를 넘어 지방 응시자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응시문화를 가장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잡기고담』 소재 과거담의 의미가 있다.

주제어: 科學, 野談, 科學談, 任邁, 雜記古談, 應試文化.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644).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科學의 실상과 그 문화적 배경을 살피기 위해 야담집인 『雜記古談』에 담긴 科學談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科學은 문학·학술·정치와 긴밀하게 연계되며 19세기 말 폐지 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주요 장치로 활용된 科學인 만큼, 부정적 측면도 상당히 존재하였다. 무엇보다 科學가 정치 권력의 공고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계층을 고착시키며 지역의 불균형을 가져오 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정치·학술의 면모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科學를 제외하고는 그 실상에 다가가기 어렵다.

科學과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시작은 법령에서부터 榜目에 이르기까지 公的 자료가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재 선발의 기준은 문장력이었다는 인식 아래 試題나 출제 답안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제도와 출제경향은 당대 정치·학술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응시자의 입장에서 科學에 대한 준비와 같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기나 편지, 필기·야담과 같은 자료에 주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

이 글 또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되, 야담 자료에 한정하여 科學의 실상과 사회적 분위기 및 문화적 배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야담은

1) 최은주,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대동한문학』 38, 대동한문학회, 2013; 차미희,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문과 경향도 향시」, 『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권기성, 「야담에 나타난 조선 후기 과거문제의 현실과 대안적 상상력-법과 정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이병직, 「박소촌화 所載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회, 2013; 임완혁, 「서사문 속의 과거 이야기」, 『대동한문학』 38, 대동한문학회, 2013; 김경, 「『於野談』의 「科學談」 양상과 특징」, 『고전과 해석』 38, 고전문화한문학회, 2022; 「『梅翁閑錄』 所在 科學談 研究」, 『동양고전연구』 91, 동양고전학회, 2023.

사대부의 기록이면서도 하층민의 구연된 이야기를 수용한 기록물이다. 따라서 科學를 체험한 이들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하층민 등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담고 있으므로, 당대 사회적 분위기도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잡기고담』은 任邁(1711~1779)가 18세기에 저술한 야담집이다. 현전하는 『잡기고담』은 일본 천리대 소장본이 유일하다. 『잡기고담』에는 24편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기존의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면서도 서사성이 두드러진 일화가 즐비하다.

『잡기고담』에 대한 연구는 저자 및 저작 연대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²⁾ 이후 서사 방식, 평어에 주목하여 저자의 작가의식 및 비평의식을 밝혔으며³⁾, 여성이나 도둑과 같은 소재적 측면에 주목하여 일화에 반영된 현실과 비판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잡기고담』의 다양한 면모가 究明되었다.⁴⁾ 이를 통해 『잡기고담』의 형성방식 및 성격을 바탕으로 각 일화의 특징점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특히 『잡기고담』에는 현실 비판적 일화가 다수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당대 사회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포착하여 인물의 구체적인

2) 진재교, 「『雜記古談』의 저작연대와 저자에 대하여」, 『서지학보』 12, 한국서지학회, 1994.

3) 안범준, 「『雜記古談』의 서술방식과 저작의도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6; 이채경, 「『雜記古談』 서사 연구 -서사 구도 및 유형을 중심으로」, 『동방학』 27, 동양고전연구소, 2013, 123~167면; 이채경, 「야담집 소재 신라 및 경주 이야기 연구-『天倪錄』, 『雜記古談』, 『東稗洛誦』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41, 신라문화연구소, 2013, 353~382면; 김미진, 「18세기 야담의 評述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4; 정보라미, 「『잡기고담』의 논평을 통해 본 임매의 비평의식」, 『구비문학연구』 68, 한국구비학회, 2023, 217~249면 참조.

4) 진재교, 「『雜記古談』소재 〈宦妻〉의 敍事와 女性像」, 『고소설연구』 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225~268면; 이원걸, 「잡기고담에 반영된 임매의 여성관」, 『한문학보』 14, 우리한문화회, 2006, 309~344면; 이승은, 「『雜記古談』 〈奇奴〉 연구-인물형상과 ‘奇’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53, 우리어문화회, 2015, 235~263면; 「『雜記古談』의 웃음과 그 이면-〈宦妻〉와 〈嘲諷〉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8, 민족어문화회, 2016, 99~124면; 「『雜記古談』 소재 〈天緣〉의 서사 지향과 허구화 방식」, 『민족문학사연구』 63,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113~134면; 장홍연, 「『잡기고담』의 현실비판적 성격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9.

행동을 통해 형상화하거나, 국가체제의 구조적 모순 및 신분제도의 붕괴, 또한 권력 계층의 비리 등 다양한 당대 병폐를 곡진히 반영하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⁵⁾

이처럼 『잡기고담』은 이전 야담보다 이야기로서 서사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현실 비판적 면모가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현실 비판적 성격에서 科擧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科擧를 통한 접근은 미진하였다.⁶⁾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실 비판에서 주된 대상인 科擧를 통해 당대 科擧와 관련된 실상과 응시문화 등을 고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잡기고담』에서 科擧와 관련된 모든 일화를 ‘科擧談’이라 칭하고 이들의 양상을 확인한 뒤 주제나 科擧와 관련된 현실의 반영 여부에 따라 특징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 또한 소재적 접근이자 작품론으로 『잡기고담』의 전모를 확인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잡기고담』의 주된 일화가 현실 비판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科擧와 관련된 일화를 통해 『잡기고담』의 주된 특징점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잡기고담』 소재 과거담에는 부정행위보다 사회구조나 정치적 입장과 같이 거시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여타 야담집과의 구별된다. 그러므로 科擧와 관련된 편린들을 찾아봄으로써 당대 科擧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진재교는 당대 사회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포착하여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형상화한 야담집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채경은 사회 경제구조 변화, 신분제도의 붕괴, 권력 계층의 비리, 국가체제의 구조적 모순 등 다양한 당대 병폐를 곡진히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6) 장흥연(2019)은 『잡기고담』의 현실비판적 성격에 집중하였다. 특히 〈盜宰相〉과 〈盜隱〉을 거론하면서 일부 科擧와 관련 현실을 고구하였지만, 科擧에 초점을 두진 않았다. 장흥연, 앞의 논문, 52~67면 참조.

2. 『雜記古談』의 科擧談 양상

『雜記古談』(천리대본)은 총 24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개 일화가 과거담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의 英祖 연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담고 있는데, 각 일화의 주요 내용과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표 1〉 雜記古談 과거담 양상

연번	권	번호	제목	등장인물	내용 및 정보	비고
1	上	2	奇奴	李時白(1592~1660) 元斗杓(1593~1664)	인조반정과 광해군 연간 과거급제를 위한 한양 거주	배경
2		4	盜宰相	무명씨	의식주 해결을 위해 도둑이 되었다가 이후 과거에 전념하여 장원급제	
3		6	天緣	李義豐(?~1754)	인조 대 자손들이 과거에 급제	
4		8	盜隱	鄭時膺(?~?) 鄭文翼(1571~1639)	庚申換局 배경 조선조 문벌에 따른 인재등용 비판	
5		10	推數	鄭希良(1469~1502)	정희량의 예언으로 합격한 유생	배경
6		12	義妓	무명씨	기생의 의리로 무과에 급제한 張生	배경
7		13	嘲諷	李穰(1597~1665) 李楚老(?~1678)	일찍 급제했으나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한 이선의 문장에 대한 이초로의 평가	
8	下	20	數奇	宣祖	과거에 급제할 운수	배경
9		21	天報	英祖	지방 유생과 교생간의 갈등과 대필	
10		24	談命	金生麗(?~?)	맹인 점쟁인 김생려의 사주와 운수	배경

『잡기고담』 소재 과거담의 주된 양상은 서사에서 인물의 배경이나 능력을 설명하는 데 科擧가 활용된다. 이는 『잡기고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야담에서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상이다. 다만, 야담에서 科擧가 서사의 배경으로 활용될 경우, 대부분은

7) 『잡기고담』의 원문에 대한 교감과 번역은 다음 저서들을 참고하였다.(정환국, 『정본 한국 야담전집』3, 보고사, 2021; 김동욱 옮김, 『국역 잡기고담』, 보고사, 2014.)

특정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기 위해 科擧가 동원된다.

『잡기고담』에서도 전술한 측면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구별되는 지점은 2화·12화에서처럼 거론되는 인물이 양반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2화·10화·24화에서는 국가체제의 구조적 모순 및 신분 제도의 混淆, 특정 권력층의 비리 등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科擧가 활용된다. 물론 본격적인 비판은 아니지만, 당시 체제나 제도에 대한 부조리를 거론함에 있어서 科擧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본격적인 과거담에 해당하는 4화·8화·21화·24화에서는 전술한 양상이 심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들 일화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지방의 응시자, 서자와 평민 등 다양한 계층들의 科擧에 대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4화와 8화는 도적과 관련된 일화로,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특히 신분제의 혼효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또한 인재 등용과 관련된 일화에서는 선발제도인 科擧에 대한 비판의식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무엇보다 응시할 수 없는 평민이나 부분적으로 제한에서 벗어난 서자들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반감 등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잡기고담』 소재 과거담에서는 科擧와 관련된 사회적 구조나 정치적 배경 등이 주로 담겨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주제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雜記古談 과거담 주제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해당작품(번호)
應試文化	응시자 실태	급제를 위한 한양 거주	2
	運과 命	운과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	12, 21
		과거에 급제할 운명	10, 20, 24
名士文才	科文 작성	문장 및 가문에 대한 평가	6, 13
制度批判	인재 선발	문벌에 따른 인재 등용	4
		신분제에 따른 인재 등용	8

위 제시한 표에서처럼 『잡기고담』 과거담의 주제는 應試文化, 名士文才, 制度批判으로 나눌 수 있다.⁸⁾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응시 문화는 과거에 합격해야만 하는 응시자의 현실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일화들이다. 이 중에서 運數나 運命은 『잡기고담』에 담긴 과거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로 『잡기고담』의 전체적인 성격과 맞물려 있다. 『잡기고담』은 기승전결의 견고한 구성을 바탕으로 長篇을 추구하면서 이야기적인 요소가 강한데, 여기에서 운수나 운명과 같이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난 초월적 도움은 등장인물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에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서사 장치로 사용된다.

야담에서 명사문재를 주제로 한 경우 科擧는 주로 특정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며 『잡기고담』에서도 동일한 성격이다. 아울러 명사인재가 등장하는 경우 科擧에서 사용된 문체인 科文과 연계되는데 이는 공신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능력을 증험하기 위해 과거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실적인 요소들이 일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잡기고담』에서 명사문재는 해당 일화에 배경이나 지엽적인 요소로 등장하면서 부차적인 성격에만 머물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비판에서는 科擧의 공정성이 특정 문벌에 의해 무너지는 현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文末의 評語를 통해 작가의 시선을 대담하게 담아내고 있다. 다만, 야담에서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루면서 科擧와 관련한 현실을 곡진히 반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이다. 이에 반해 『잡기고담』에서는 부정행위보다는 사회구조나 정치적 입장과 같이 거시적 문제에 주목하고

8) 『잡기고담』의 소재 모든 과거담이 표 2의 분류방식에 의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한 일화에는 2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지만, 각 일화에서 보다 강조되는 주제에 의해 분류하였다.

있다는 점이 여타 야담집과의 구별된다. 또한 응시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응시문화와 관련된 일화에서 부차적으로만 확인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야담에서 과거담은 주로 특정 인물의 능력, 당대 현실 및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일화가 주를 이루는 데 반해, 『잡기고담』에서는 과거담이 주로 응시문화에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응시자 입장에서 出世는 주로 명분이 강조되어 있지만, 『잡기고담』에는 명분보다는 생존의 입장이 부각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구조나 정치적 사건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여타 과거담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상을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 科擧 관련 현실의 반영 정도와 사회적 분위기 및 정치적 배경 등을 확인하면서 『잡기고담』에 담긴 과거담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3. 『雜記古談』의 科擧談 특징

1) 다양한 계층의 科擧 대응 및 出世 의식

『잡기고담』 소재 과거담에는 양반층뿐만 아니라 서자나 평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應試 현실이 담겨 있다. 특히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이들의 당대 科擧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선후기 사회경제 구조가 요동치고 신분제가 混淆되는 국면에 이르게 되면서 科擧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담고 있다.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한 科擧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계의 유지 및 명성을 이어가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출세의 관문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특정 권력에 의해 더욱 좁아지면서 다수의 양반층은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게다가 중소지주가 아니라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였으므로 科擧 공부만을 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淸貧을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했지만, 빈곤과 같은 문제의 대두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沒落兩班이나 殘班과 같은 계층은 科擧를 통한 출세를 포기하고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⁹⁾

『잡기고담』의 4화인 〈盜宰相〉은 이러한 조선후기 몰락양반층의 현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몰락양반의 처지에서 科擧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줄거리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구성	대단락	소단락	단락 내용	비고
도입	①	①-1	도적에 대한 작자 평	評語
		①-2	도적 우두머리의 개과천선 사례	
전개	②	②-1	산속 절에서 科擧 공부에 몰두	傳言
		②-2	가난한 아내의 편지로 科擧의 목적 확인	
		②-3	부귀영화를 위해 도적이 되기로 함	
	③	③-1	도둑 소굴에 들어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함	
		③-2	지략을 통해 우두머리로서의 신뢰 구축	
		③-3	재물이 축적되자 도적 떼를 해체함	
	④	④-1	다시 科擧 공부에 몰두하여 급제 및 재상과 형조판서에 이름	
		④-2	도적 때 약탈한 집안 후손의 송사를 맡게 되어 사실을 고변	
결말	⑤	⑤-1	고려시대 인품과 습속에 대한 평	評語
		⑤-2	조선시대 인물의 기개와 지조에 대한 비판	

이 일화의 배경은 고려시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배경은 조선 후기로 이 시기 금전만능 풍조가 만연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¹⁰⁾ 게다가 조선 초기 비교적 科擧를 통해 균등한 출세의 기회가 있었던

9) 이들의 현실 대응 방식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곤궁하면서도 양반의 지조를 지키려 번민하는 경우, 체통을 버리고 양반이라는 신분을 매매하는 경우, 致富를 權道로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손찬식, 『漢文短篇에 나타난 沒落兩班의 刑象』, 『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108면) 야담에서는 富農을 경영하거나, 사회구조에 일탈하며 저항하거나, 自嘲的으로 戲畫化하기도 하였다.(김동석, 『『紀文叢話』 이야기와 朝鮮後期 沒落兩班層의 向方』, 『야담문학연구의 현대계』 3, 보고서, 2001, 245~269면 참조.)

10) 정하영, 『義賊說話 「盜宰相」考』, 『야담문학연구의 현대계』 3, 보고서, 2001, 101~102면; 정홍연, 앞의 논문, 59~60면 참조.

상황에서 중기 이후 士禍나 黨爭으로 인한 사회 계층 구조가 요동한 측면을 담고 있다.¹¹⁾

‘내가 부지런히 고생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급제하여 처자와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지금껏 급제하지 못하고 고생하던 아내가 죽게 생겼으니 책을 읽어 무엇 한단 말인가?’ 마침내 책을 써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까까머리를 하고 앉았다가 그를 보자 얼굴을 가리고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슬퍼져 겨우 몇 마디 말로 아내를 위로하고는 바깥으로 나와 앉아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을 했다. ‘아, 하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런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하는가? 내 문장이 어찌 남보다 못하며 재능과 지략이 어찌 남보다 못하랴? 문벌도 어찌 남보다 떨어지며, 인물도 어찌 남보다 떨어지랴? 나이 서른이 되도록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구나. 수많은 책을 섭렵했지만 굶주림을 한 번도 구제하지 못했고, 붓끝으로 천 편 글을 써내도 한 번 취하도록 마실 술값도 되지 못하며, 한 몸이 고단하고 처자가 떨고 굶주리니,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곤경에 이르게 한단 말인가?’¹²⁾

인용문은 ㉒-2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선비는 계속된 낙방에도 응시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가난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애초 응시의 목적을 다시 확인되게 된다. 科擧 공부를 위해 아내가 생업을 전담하지만, 가난으로 인해 생계를 보존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자 현실을 지각함으로써 의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그가 애초 여겼던 과거급제의 목적은 입신양명이 아닌 부귀영화다. 이는 명분보다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科擧는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

11) 任邁, 〈盜宰相〉, 『雜記古談』, “萬民之業, 士農工賈四者耳. 今士不可爲, 工亦未嘗學習, 何可猝爲也? 只有農商二途, 無田土可農, 無本資可商, 雖欲別作生計, 將何爲謀?”

12) 任邁, 〈盜宰相〉, 『雜記古談』, “我之勤苦讀書, 將以求科甲, 圖富貴與妻子共享也. 今科甲不來, 糟糠將亡, 讀書何爲? 遂撤卷還家, 則其妻髡首而坐, 見生掩面而啼. 生亦不覺憾然, 僅以數語慰安其妻, 出坐于外, 仰天長歎曰, 嗟乎, 天也! 夫何使我至於此極也? 我文章, 豈不及於人, 才略, 豈不及於人, 門楣豈不及於人, 骨相豈不及於人? 年登三十, 未成一第. 腹破萬卷不救一飢, 筆下千篇, 不直一醉, 一身困悴, 妻子凍餓, 夫何使我至於此極也?”

이었지만, 科擧 공부로 인해 더욱 궁핍해지자 그 수단을 버리게 된다.

그런데 그는 출세하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 보다는 문벌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식하면서도 과거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몰락한 현실과 科擧의 낙방에 대한 신세 한탄은 다분히 자조적이다. 물론 당색과 파별로 인해 科擧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로지 양반이라는 기득권을 회복 및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④에 이르러 생계유지 및 부의 축적을 이루자 科擧에 응시하며 출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재상」에서 도둑의 행위는 체제의 전복과 같은 저항적 대응이 아닌 일탈이므로, 오히려 체제 순응형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야담에서 몰락양반을 대상으로 한 일화는 『記文叢話』(연세대본) 161화의 崔生과 『기문총화』의 201화, 『청구야담』(국중본)의 18화의 儒生, 『東稗洛誦』의 許珙, 『東野彙輯』의 許弘 등으로, 다수가 확인된다. 이 일화들에서도 과거시험에 대한 인식을 통한 현실 대응을 살필 수 있으며¹³⁾ 인용문과 같이 몰락양반이 도적으로 변모하는 일화도 적지 않다.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과거 응시를 포기하기는 양상은 같지만, 대응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도재상>의 경우 도적 행위의 목적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당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위법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여타 야담집의 양상과 동일하다. 하지만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양반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려는 지점은 이들과의 차이점이다. 즉 도적으로의 변모는 선비라는 본분으로 회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기에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닌 일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대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였으므로 과거제도의 부정이라기보다 당대 제도

13) 김동석, 앞의 논문, 246~251면 참조.

시행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법을 자행하였고, 이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결국 과거시험에 응시한다는 결과로 본다면 출세에 대한 욕망이 더욱 공고화되는 경향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잡기고담』 8화인 〈盜隱〉은 서자와 평민이衣食을 해결하기 위해 도적이 된 일화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에는 黨爭이나 土禍가 빈번했던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면서 과거를 통해 유지되어 오던 인재 선발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었다. 이 과정에서 科擧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이들의 세력 유지 및 공고화에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능력이 있음에도 출세하지 못하는 이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서자와 평민의 경우 출세에 제한된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우함이 누적되면서 일부는 체제를 부정하여 群盜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잡기고담』 8화인 〈盜隱〉에서는 양대 政變 이후 閥閥 가문의 형성과 이들의 권력의 독점화에 따른 인재 선발의 부정, 그리고 능력이 있음에도 신분제의 한계로 인해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모순을 엿볼 수 있다.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구성	대단락	소단락	단락 내용	비고
도입	①	①-1	정문익의 서자 정사옹의 난폭함	逸話
		①-2	함께 놀던 평민의 아들의 유연한 대처	
전개	②	②-1	장성한 정사옹은 개과천선하여 무과에 합격	
		②-2	병자호란 뒤 관직에 진출했으나 가문이 빈한하여 출세가 막힘	
		②-3	서인 金錫胄의 제안에 黨派의 이유로 거절	
		②-4	庚申換局 때 남인이 몰락하자 정사옹은 더욱 가난해 짐	
	③	③-1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진주를 지나다가 부자가 초대함	
		③-2	부자는 어린 시절 평민의 아들로, 조선 제일의 도적이 됨	
		③-3	정사옹은 크게 놀라면서 도움을 받음	
결말	④	④-1	문벌로만 인재를 선발하는 당대를 비판	評語
		④-2	중국의 사례로 도적의 난을 우려	

〈盜隱〉은 鄭文翼(1571~1639)의 서자인 鄭時膺(?~?)과 평민 친구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신분제로 인해 出世가 제한되거나 出世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저마다의 신분에 따라 출세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이 일화에 주된 내용인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인재 선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일화에 서사를 이끌어가는 서자인 정시응은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하지만, 가문이 빈한하여 진급이 누락된다. 이후 병조판서이자 서인인 金錫胄(1634~1684)가 정시응을 중용하고자 했지만, 정시응은 남인이라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1680년 庚申換局에 이르자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득세하자 집안이 더욱 가난해지게 된다.¹⁴⁾ 이를 통해 서자라는 신분의 한계, 문벌 중심과 당파에 따른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신환국 이후 정시응과 같은 서자는 衣食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서열에 대한 문과 응시와 이에 대한 논쟁은 『經國大典』에 명시화되면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논쟁의 양상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는 16세기 중반까지 서열에 대한 금지가 법제적으로 더욱 엄격히 강화되었고, 17세기 초반 이후 서열 許通 논쟁으로 점차 사회적 편견이 개선되었다.¹⁵⁾ 이러한 과정이나 구체적인 사례들이 야담 자료에서도 주된 소재로 등장한다. 〈도은〉에서 정시응의 경우 어릴 적부터 武人으로서의 능력이 부각되어

14) 任邁, 〈盜隱〉, 『雜記古談』, “鄭時膺, 故監司文翼之庶子也. (….) 後鄭益長, 更折節自劾, 業弓馬, 登武科. (….) 以其無外家也, 故格焉. (….) 清城金公判兵曹, 欲邀致之, 鄭午人也, 意不悅清城, 不肯詣. (….) 及庚申改紀, 復失勢, 托足無門, 家益貧. (….) 令公乃觀察使之令郎也, 兼之以智勇絕倫, 武藝超群, 只緣有一名也, 僅不過龍川府使, 白首窮餓, 行乞於百里之外. 況我民家子, 將何所施用於此世也? 萬事快活, 無過於蕉蒲之生涯也.”

15) 이성무, 『韓國의 科擧制度』, 한국학술정보(주), 2004, 218~219면; 박경남, 「崔鳴吉·崔錫鼎의 庶孽許通 상소와 지식인의 역할」, 『고전문화연구』 58, 한국고전문화회, 2020, 84~85면 참조.

있기에, 文科에 대한 포기는 신분적 한계에 의한 것이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무과에 합격 이후에도 貧寒한 가문에 의해 진급이 누락된다는 점에서 당시 서자가 처한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정시응은 衣食을 해결하기 위해 진주로 가던 길에 도적이 된 어릴 적 평민 친구를 만나게 된다. 그간 이야기를 통해 평민의 현실 대응 방식을 살필 수 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평민은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가 없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일이 하다 결국 群盜에 가담하게 된다. 이후 평민의 뛰어난 능력은 도적 우두머리가 되는데 활용된다. 저자는 이 과정을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신분제의 한계로 인해 능력이 정당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설파하였다.

이처럼 서자는 이름뿐인 관직에 처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평민은 출세할 수 없으므로 도적이 되었다. 신분제 한계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였고, 아울러 당색과 파벌로 인해 벼슬이 제한되는 등장인물의 처지를 통해 인재 선발의 편협성을 사회 구조적인 한계와 정치적 대립을 통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文末의 평어에서 명료하게 확인된다.¹⁶⁾

지금까지 신분제 측면에서 『잡기고담』 소재 과거담을 살펴보았다. 앞서 분석대상으로 거론한 <도재상>은 개인의 인품과 습속에 제한하여 일화로 구성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¹⁷⁾ 이 과정에서 당대 몰락양반층의 현실 대응에 있어 명분보다는 현실을

16) 任邁, <盜隱>, 『雜記古談』, “余嘗有言爲盜者, 其才亦必有過於人者. 此雖出於一時戲嘆, 而今以此事觀之, 則豈不信哉? 我國用人, 專以門閥, 雖有絕人之材, 苟其出於下賤, 排擯不齒, 無所試用. 地之生材, 本不擇高下, 隴畝草萊之間, 安知無梟雄之姿軒然自負哉? 善者捫蝨悲吟, 藏名而玩世, 其惡者輟耕太息, 走潢池如鷲者, 固其勢也. 夫使豪熊猛虎, 飢餓於窮林, 不得洩其咆哮磔裂之慾, 則其佛鬱不平之氣, 積之既久, 終必積決, 一朝風塵, 葛榮黃巢, 皆其徒也, 是可憂也!”

17) 任邁, <盜宰相>, 『雜記古談』, “余嘗觀麗史, 將相名臣, 多魁偉磊落之人. 權奸巨猾之作亂者, 亦復極其凶惡, 無所顧忌. 因意其一代人品習氣, 多亢爽果毅, 不拘拘於繩墨之內也. 今以此生本末見之, 不其然歟?”

고려한다는 점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科擧를 통한 출세와 이에 대한 욕망이 오히려 공고화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신분제의 혼효와 이에 따라 새로운 가치와 윤리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선비로서의 명분과 현실 대응 사이에서 균열된 틈을 조선에서 科擧가 지니는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서자와 평민의 처지에서 科擧에 대한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전하는 기록이 주로 名士나 합격자 위주이므로, 응시자가 될 수 없었던 이들의 심정과 그리고 현실 대응을 살피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잡기고담』 소재 과거담에서는 응시자가 될 수 없었던 이들의 처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대응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科擧와 관련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2) 지방 응시자의 현실과 급제의 절실함

『잡기고담』의 과거담에는 지방 응시자 입장에서의 과거제도에 대한 인식과 시험 준비,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문화 등을 살필 수 있다. 대표적인 일화는 〈天報〉로,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구성	대단락	소단락	단락 내용	비고
도입	①	①-1	전라도 儒生들이 복시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	逸話
		①-2	글을 모르는 校生이 代述로 초시에 합격하여 이들과 함께 상경	
전개	②	②-1	유생들이 교생에게 代述해 주겠다고 약속함	
		②-2	답안을 버려 교생을 속임	
		②-3	교생에게는 정성껏 작성했다고 말함	
	③	③-1	유생들은 낙방하고 교생만 합격	
		③-2	실수로 자신의 답안을 버리고 교생의 것으로 제출	
		③-3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 膾炙됨	
결말	④	④-1	하늘이 報應한 것이라 여김. 현실에서는 無報應의 경우도 있음	評語
		④-2	이는 막연하게 하여 더욱 두렵게 하려는 의도	

或以此爲本朝人是實不然。本朝人物，則雖豪傑魁梧之姿，必帶戰兢臨履之志，間有狂狷不羈之流，亦自托於詩酒，引重於氣節，未嘗有胖棄規矩，越禮踰閑，若是放肆者也。余之所聞，以爲麗人者當之。”

「천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시에 入格한 전라도 여섯 儒生이 覆試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하게 되었는데, 이때 글을 전혀 모르는 校生이 남이 써준 답안으로 초시에 입격하여 함께 가게 된다. 이번에도 남이 써주길 원해 여섯 선비에게 기대하였고 여섯 선비는 교생을 희롱하기 위해 代述한 답안을 대충 쓰고 버린다. 그런데 여섯 선비는 낙방하고 교생이 入格하는데, 이는 실수로 자신의 시험지를 버리고 교생의 시험지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작자는 이를 남을 속인 것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 평하고 있다.¹⁸⁾

이 일화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지방 유생의 응시, 유생과 교생 사이의 갈등, 그리고 代述이다. 먼저 지방 유생의 응시는 시험 일정에 대한 정보와 지역적 한계로 인해 불리하였다.¹⁹⁾ 하지만 식년시의 경우, 특히 1차 시험인 초시는 서울인 한성시와 각 도에서 실시하는 향시가 동시에 設行되었기에 지역에 따른 불리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經國大典』에 의하면 한성시는 200명, 향시의 경우 도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500명 중에서 전라도는 90명 정도였다.²⁰⁾

18) 任邁, 〈天報〉, 『雜記古談』, “當丙午式年, 湖南儒生發解者六人, 將赴會闕, 作伴北上. 有一校生, 全不識字, 而受人之走筆, 偶參解額, 亦隨其行. 而其呈券裂寫, 專恃於六人也. 六人相與謀曰, “夫也, 無文無筆, 同入試闕, 只爲吾輩之陋累. 彼實蠢愚可誑也.” 仍競誘之曰, “王城試場, 不似外邑. 呵禁至嚴, 小失容色, 輒被加銷, 眞可畏也. 汝之呈券, 吾儕當爲之盡誠, 汝不必自陷可畏之地也. 若或蹉跌, 一被下問, 代述發露, 則罪律至重, 汝將奈何?” 以此更迭慫恿, 校生信而從之. 及入闕, 六人者呈券已訖, 以校生試紙, 屏棄隱處, 出而言曰, “汝之試卷, 吾儕合力以成之, 甚得意也. 吾放心揮毫, 筆畫飛動.” 衆競相倡曰, “文固佳矣. 當以取筆高中!” 校生亦信之. 及其拆號, 六人者皆黜, 而校生反獨中焉. 蓋其中一人, 誤換用校生之紙, 而其屏棄者, 眞已物也, 實亦首發其謀者也. 六人既失志, 意氣沮喪, 情懷淒切, 含淚而歸, 自知其負心, 不敢以告人. 後稍稍語泄, 人皆以爲是爲天所厭.”

19) 식년시 이외에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별시의 경우 예고 없이 실시되었기에 지방 유생에게 불리하였다. 이성무, 앞의 책, 128면.

20) 지방 향시의 경우 도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 강원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지방은 2개의 試所로 나누어 선발하였는데 현재까지 17세기 이후 정확한 응시인원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

『續大典』에서도 한성부와 경기도를 통합한 것 이외에 모두 동일하다. 즉 지역 차원에서 의 안배가 있었으므로,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복시는 결국 서울에서 설행되었으므로 지방 유생들은 여행 비용이나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향시보다는 한성시에 응시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상경하기도 하였다. 『잡기고담』 2화인 〈奇奴〉에서도 서울에 사는 이유를 과거급제로 벼슬하기 위한 것이라 할 만큼, 지리적 위치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²¹⁾ 더욱이 조선후기에는 謁聖試·別試·庭試와 같은 각종 비정기 시험의 증가로 인해 무슨 시험이 언제 설행되는지 매우 유동적이었기에 지방 유생은 서울 유생보다 불리하였으며, 京鄕이 점차 분리되는 추세에서 세도가의 자제들이 많이 등과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²²⁾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에서 시행되는 단일 시험을 선호하였고 초시와 복시 각각 3場을 거쳐야 하는 식년시는 그 만큼 시험 기간이 길기에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일화의 배경은 1726년(영조 2) 식년시이다. 이때 설행되었던 식년시는 榜目에 의하면 9월 24일이다.²³⁾ 이는 초시에 대한 날짜이고, 복시는 그다음 해 초봄에 설행되었으므로 1729년 2월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일화에서는 유독 식년복시를 배경으로 설정하였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일단 구전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작자의 창작이라 한다면 단일시와 같은 비정기 시험보다 정기시험인 식년시는 과거시험에서 대표성을 지닌다. 게다가 지방응시생의 상경, 그리고 향시와

21) 任邁, 〈奇奴〉, 『雜記古談』, “凡貧士之偏仄京裡者, 只爲科宦圖耳.”

22) 일례로 전라도 興德縣(현재 고창지역)에 거주했던 黃胤錫은 『頤齋亂藁』에서는 지방 응시자로서 한성시에 소극적인 입장이 확인된다.(유영옥, 「鄉儒 黃胤錫 京科 응시 이력」, 『대동한문학』 44, 대동한문학회, 2015, 130~141면 참조.) 또한 1717년(숙종 43)부터 1729년(영조 5)까지 과거 응시를 기록한 전라도 함평지역 李濬의 『導哉日記』는 이 일화와 시기적, 지리적 측면에서 주목되는데, 이 일기에서도 지방 유생의 응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23) 『丙午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6024-70])

한성시의 科場의 차이 등을 한 시험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식년복시이므로 이러한 설정을 통해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일화는 조선후기 지방 교육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지방응시생은 公都會를 통한 생원진사시 복시 直赴의 인원이 증가하는데, 이는 17세기 후반 지방 교육의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관이 주도하는 지방 교육이 확산하였기 때문이다.²⁴⁾ 이러한 측면에서 유생과 교생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⁵⁾

우선 교생은 향교의 生徒이다. 조선은 건국 이후 지방 고을마다 향교를 세워 그 지역 생도를 교육하였고, 이들은 과거에 합격하여 出仕하거나 후학을 양성하는 등 향교를 통한 지방 교육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²⁶⁾ 하지만 종종 무렵 평민 자제들이 군역을 피할 목적으로 향교에 입학하게 되자 양반 자제들은 향교 대신 서원으로 출입하게 되면서 향교 교육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교생에게 考講을 실시하여 떨어진 자들을 군역으로 충당하였는데, 이 시험이 강화되자 양반 출신 자제들은 더욱 향교에 입학하지 않으려 했다. 이에 평민 출신과 구별하기 위해 성균관 생도들을 지칭하던 유생을 자신들의 호칭으로 사용되면서 유생과 교생은 신분 차이에 의한 호칭으로 굳어지게 되었다.²⁷⁾

아울러 조선후기에는 신분제가 混淆되면서 교생은 평민보다 조금 높고 양반보다는 낮은 가운데 계층으로 인식되었는데, 무엇보다 향교가

24) 원창애, 「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공도회 설행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102, 조선시대사학회, 2022, 158~159면 참조.

25) 『잡기고담』 24화인 〈談命〉에서 유생과 갈등은 아니지만, 재상의 아들이 향교에 입학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26)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교」, 『한파이상옥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69; 이병직, 「조선 전기의 교생신분」, 『한국사론』 3, 1976.

27) 이러한 변화는 시기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숙종 때 이후 확연한 변화가 확인된다. 이하 교생과 관련된 서술은 다음 논문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전경목, 「조선 후기의 교생」,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290~291면 참조.

군역의 도피처가 되면서 교생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교생의 주된 역할은 향교 및 고을의 공식적 의식을 주관하여 시행하였기에, 詩나 賦와 같은 글 짓는 학업은 주된 일이 아니었다. 이처럼 조선후기 교생은 학문 연마와는 거리가 멀었으므로, 이 일화에서 등장하는 유생들의 교생에 대한 무시는 신분제 차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문장력이 전혀 없는 교생의 응시 자체를 조롱한 것이다. 더욱이 이 일화에 등장하는 교생은 자신의 실력이 아닌 代述를 통해 초시를 통과하였고, 복시에서도 유생들에게 借述을 직접 부탁하지는 않지만 내심 기대하였다.²⁸⁾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유생들의 대술과 답안 작성의 과정이다. 또한 대술을 통해 교생은 복시까지 통과하게 되는데, 대술은 과거시험에서 대표적인 부정행위이다. 그럼에도 이 일화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생에 대한 비판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반면에 교생을 속인 유생들만이 비판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대술이나 차술은 두 차례 과거를 볼 수 없는 停學에 해당하는 처벌의 대상이었다.²⁹⁾ 숙종 때에는 代述을 자복한 자는 먼 변방에 充軍하되 특수 죄로 간주하여 사면을 허용하지 않았고 또 실정을 숨긴 자는 두어 차례 刑罰한 다음에 이와 같은 죄로 다스렸다.³⁰⁾ 이후 『大典通編』에서도 대술의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서울과 지방의 대과·소과 시험장에서 남을 시켜 製述하게 한 자들과 더불어 변방의 먼 곳에 充軍하였으며, 또한 內打印이라는 절차를 복구하여 대술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³¹⁾ 내타인은 시험 중에 답안을 걷어

28) 다른 사람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代述,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借述이다. 원창에 外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53면.

29) 『經國大典·禮典·雜令』, “擧子場中挾冊者, 借述者, 代述者, 停二擧.”

30) 『肅宗實錄』 6권, 1677년 2월 23일 2번째 기사.

31) 『大典通編·禮典·諸科』, “中外大小科場, 借述代述者, 帶率隨從者, 不錄名闖入者, 符同易書者, 首倡作亂罷場者, 朝官生進則邊遠充軍.” “凡大小科試券, 令四館打印.[會試, 又有內打印, 初試則否.]”

응시자 본인이 답안을 작성하는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 응시자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답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시험 도중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1714년(숙종 40)에 폐지되었다가, 1735년(영조 11) 복시 때 복구하였다.

이렇듯 科場 내에서의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답안을 베끼는 행위인 대술과 차술은 同接이라는 집단을 통해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轉流되었다. 특히 동접 중에서 글 잘하는 사람인 接長의 답안지를 베끼는 행위가 빈번하였는데, 이는 대술을 더욱 성행하게 하였고 대술을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등장하며 巨擘이나 乳母라 칭해지기도 했다.³²⁾

이 일화에서 6명의 유생은 동접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유생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답안을 작성하겠다는 것으로 교생을 꼬드겼고 시험 종료 후 교생에게 6명이 힘을 합쳐 써냈다는 서술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 동접의 공동 답안 작성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일화에서는 조선 후기 대술 성행의 원인에 해당하는 동접의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는 朴亮漢(1677~1746)의 『梅翁閑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동접끼리의 공동 답안 작성을 미풍양속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科擧의 목적은 선발이므로 제한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응시자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동접은 합격을 위해 조직된 모임이지만, 서로가 경쟁 관계가 아닌 문장의 정교함을 신장시키기 위한 협력자 집단이었다. 따라서 공동 답안 작성을 협력 행위로 보아 미풍양속으로 여겼다고 하였다.³³⁾ 그러나 이 일화의 배경인 영조 대

32) 박현순, 『조선 후기의 科擧』, 소명, 2014, 201~202면 참조.

33) 朴亮漢, 『梅翁閑錄』下(전리대본), “古者, 科場試取之規, 惟文工拙是辨. 士友隨其親戚知舊,

에도 동점의 대술은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로 등장하는 것처럼, 시험의 원칙과 선발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선량한 공동체적 성격에서 출발한 동점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급제의 절실함으로 인해 부정행위의 온상으로 변하게 되었다.³⁴⁾

이처럼 대술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꾸준히 科場에서 자행되었지만, 동점끼리 답안 작성과 이를 통한 대술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일화에서도 유생들의 공동 답안 작성을 비판하기보다 교생을 속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하늘이 벌을 내린 것으로 인식하였기에, 일화의 제목도 〈天報〉라 한 것이다. 저자는 評語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자의 시선도 동일함을 알 수가 있다.³⁵⁾

지금까지 지방 유생 및 교생의 응시 현실과 이들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급제의 절실함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 제시한 일화는 『잡기고담』의 두드러진 성격인 서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허구성이 강하다. 이에 〈推數〉나 〈談命〉에서는 운수와 운명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를 통해 급제의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천보〉와 같은 일화에서 확인하였듯이 그 안에 배경으로 설정된 인물과 사건 등은 조선후기의 지방응시생의 입장과 사회 분위기를 촘촘히 담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유생과 교생의 관계를 통해 조선후기 지방 교육을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대술을 통해 과거 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聚成文會，謂之同接。入場屋，一接分隊同坐，或時刻急促，一人將未能及時完篇，則一坐同力，累人各相遞攝如聯句，卽刻而篇成。以一人名呈一券得捷，如庭試調聖及賜柑節製，一接之人，循序得中，殆盡無餘。蓋聖代厚風也。”

34) 김경, 앞의 논문, 2023, 77~78면 참조.

35) 任邁, 〈天報〉, 『雜記古談』, “曾見道家書, 以慢驕愚人爲大戒, 以爲損折福力, 此誠至論也. 六人者, 於此宜其及矣.”

흐름에서 부정행위는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동접끼리 답안 작성은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늠할 수가 있었다. 이에 지금껏 법령 중심과 서울 중심으로 이해되어왔던 科擧를 넘어, 지방 응시자를 통해 지방의 사회적 분위기와 지방 응시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잡기고담』에 담긴 과거담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하겠다.

4. 나오며

이 글에서는 微視史 연구방법론을 통해 조선후기 科擧 현실과 응시 문화를 究明하였다. 이를 위해 야담에 담긴 科擧와 관련된 일화를 통해 당대 과거 시험뿐만 아니라 응시자 입장에서 숨어있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무엇보다 法典과 같은 公的 기록에서는 규정의 엄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문집류와 같은 私的 기록에서 부정행위가 남발하고 있기에, 현재 科擧의 전모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또한 기존의 해석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단면을 제시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잡기고담』에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잡기고담』 소재 과거담은 응시문화에 관련된 일화가 주를 이룬다. 이는 『잡기고담』이 지닌 전체적인 면모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잡기고담』에는 장편에 해당하는 일화가 주를 이루며, 소설과 같은 구성으로 서사성이 우세하다. 또 하나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포착하여 이들의 삶을 일화로 구현하였기에 과거담에서도 이들의 科擧에 대한 이해나 응시와 관련된 부분이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양자가 결합하면서 응시문화와 관련된 일화가 『잡기고담』의 과거담의 주된 특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한편, 『잡기고담』의 서사 지향적 면모는 조선후기 여타 야담과 결을 달리하면서도 가계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임매의 조부인 任陞

(1640~1724)의 『天倪錄』은 귀신이나 괴물 같은 신이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비현실성이 우세한 야담집이다. 무엇보다 신이한 이야기는 서사 지향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자의 평어가 문말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과 체제는 『잡기고담』에 그대로 전수되었다. 아울러 서사 지향적 면모는 임매와 姻戚 관계인 李運永(1722~1794)의 『瀨尾編』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잡기고담』의 체제와 서사 지향적 면모는 가계의 자장 안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잡기고담』은 『천예록』에서 보여주는 신이담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확인되면서도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 지향적이다. 주로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포착하여 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적 요소를 통해 소설적 구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야담에서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있음직한 모습으로 재현하기 위해 당대 사회의 현실이나 상황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잡기고담』의 경우도 전체적인 일화로 보자면 양자의 면모가 병존한다. 그런데 과거담에 제한한다면 전자의 특징이 우세하다. 물론 서사기제로서 운명과 운수와 같은 비현실적 요소들이 등장하지만, 각 일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出世와 致富를 위해 일탈하거나 저항하는 면모는 조선후기 신분제의 혼흐와 특정 집단의 권력 강화를 위해 科擧를 독점하는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은 초기 야담인 『於野談』의 성격과 유사하다.³⁶⁾

그럼에도 과거담 측면에서 보자면 여타 야담과 차이가 확인된다. 초기 야담에서는 사실성이 강조되는데 주로 『어우야담』에서는 科擧 관련 법령이 우세하다. 『잡기고담』과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영미편』에서는 허구성이 강조되면서도 科場의 관리 및 부정행위에 의한 선발의 공정성

36) 『어우야담』의 과거담도 사실과 허구가 교직되어 있지만, 사실성이 강조되는 일화가 우세하다. 김경, 앞의 논문, 2022, 272~279면 참조.

등과 같은 문제가 주를 이룬다.³⁷⁾ 한편 『매옹한록』에서는 사실성과 허구성이 균형을 이루며 과거담에서도 법령에서부터 부정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모가 확인된다.

이에 반해 『잡기고담』은 다양한 계층의 응시 현황과 지방응시생과 관련된 응시문화 주를 이룬다. 운수와 운명을 통한 과거의 절실함과 하층민의 도움으로 합격하는 일화가 병존하지만, 양반 이외에 서자나 평민의 시각에서 구성된 과거담이 한 축을 구성하는 것은 여타 야담집과 구별되는 면모이다. 아울러 모든 일화에 평을 부기하여 작자의 시각을 文面化하였는데, 일화에서의 서사 지향적인 면모와 대비를 이루며 현실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도 『잡기고담』의 도드라지는 점이다.

또 하나는 조선후기 야담에서 당파적 시각이 반영된 일화가 즐비하다. 특히 야담이 노론계에서 의해 저술된 자료가 많은 만큼, 이들의 시각에서 당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³⁸⁾ 그런데 『잡기고담』의 경우, 당파적 시각이 비교적 농후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잡기고담』에 당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은>에서 남인계 인물인 정시응을 일화에 중심에 두고 있으며 서인계 김석주가 등장하는데, 김석주는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정시응은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에서 저자인 任邁는 노론계 인물로 서인에 대한 옹호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잡기고담』에는 인조반정, 갑자사화, 경신대출척과 같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일화 다수임에도 노론계 측면에서 사건을 해석하거나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일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여타 야담에서는 家系와 관련된 인물들의 傳言을 통해 일화를 구성

37) 김경, 「事實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동양고전연구』80, 동양고전학회, 2020, 93~95면 참조.

38) 물론 타 당파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야담집도 현존한다. 『梅翁閑錄』의 경우 저자인 朴亮漢은 소론계 인물이다.

하면서, 이들의 당파적 시각이 자연스레 반영된다. 하지만 『잡기고담』은 가계와 관련된 인물의 전언이 기타 야담집보다 희박하다. 이는 『잡기고담』의 서사성이 두드러지는 이야기적 구성이 작용한 결과이다.

정리하자면, 『잡기고담』은 전체적인 체재나 장편의 형식으로 서사성이 강조되는 면모는 『천예록』의 특징을 전수하고 있기에 당파적 시각이 희박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비현실성보다 현실 지향적 면모는 『천예록』과 구별되는 지점이고, 이러한 면모는 오히려 초기 야담의 성격에 가깝다.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에 주목하여 이들을 일화의 등장인물로 내세웠고 게다가 각계 인물의 처한 현실을 치밀히 배치하여 현실적 면모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이를 평어라는 형식을 통해 작자의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방식이 『잡기고담』의 주된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잡기고담』의 서사성과 사실성과 같은 특징은 조선후기 야담 흐름 속에 위치한다. 다만 과거담으로 제한한다면 그동안 양반 계층에서만 이해되어왔던 응시문화를 평민이나 서자 입장에서 이들의 이해 방식을 살필 수 있었고, 또한 서울 중심으로 한 응시문화를 넘어 지방 응시자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응시문화를 가장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잡기고담』 소재 과거담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원전 자료】

- 김동욱 옮김, 『국역 잡기고담』, 보고사, 2014.
 정환국, 『정본 한국 야담전집』 2, 보고사, 2021.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 센터(<http://kostma.korea.ac.kr/>)
 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저서 및 논문】

- 김 경, 「事實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93~95면.
 ———, 「『於野談』의 ‘科學談’ 양상과 특징」, 『고전과 해석』 38, 고전문화한문학회, 2022, 272~279면.
 ———, 「『梅翁閑錄』所在 科學談 研究」, 『동양고전연구』 91, 동양고전학회, 2023, 77~78면.
 김동석, 「『紀文叢話』 이야기와 朝鮮後期 沒落兩班層의 南方」, 『야담문화연구의 현단계』 3, 보고사, 2001, 245~269면.
 박경남, 「崔鳴吉·崔錫鼎의 庶孽許通 상소와 지식인의 역할」, 『고전문화연구』 58, 한국고전문화회, 2020, 84~85면.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 2014, 201~202면.
 손찬식, 「漢文短篇에 나타난 沒落 兩班의 刑象」, 『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108면.
 원창애 외 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53면.
 원창애, 「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공도회 실행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102, 조선시대사학회, 2022, 158~159면.
 유영옥, 「鄉儒 黃胤錫 京科 응시 이력」, 『대동한문학』 44, 대동한문화회, 2015, 130~141면.
 이성무, 『韓國의 科學制度』, 한국학술정보(주), 2004, 218~219면.
 이승은, 「『雜記古談』〈奇奴〉 연구-인물형상과 ‘奇’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53, 우리어문화회, 2015, 235~263면.
 ———, 「『雜記古談』의 웃음과 그 이면 - 〈宦妻〉와 〈嘲諷〉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8,

- 민족어문학회, 2016, 99~124면.
- _____, 「『雜記古談』 소재 「天緣」의 서사 지향과 허구화 방식」, 『민족문학사연구』 63,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113~134면.
- 이원걸, 「잡기고담에 반영된 임매의 여성관」, 『한문학보』 14, 우리한문학회, 2006, 309~344면.
- 이재경, 「『雜記古談』 서사 연구 —서사 구도 및 유형을 중심으로—」, 『동방학』 27,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3, 123~167면.
- 장흥연, 「『잡기고담』의 현실비판적 성격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9, 52~67면.
- 전경목, 「조선 후기의 교생」,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290~291면.
- 정보라미, 「『잡기고담』의 논평을 통해 본 임매의 비평의식」, 『구비문학연구』 68, 한국구비문학학회, 2023, 217~249면.
- 정하영, 「義賊說話 「盜宰相」考」,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3, 보고서, 2001, 101~102면.
- 진재교, 「『雜記古談』 소재 〈宦妻〉의 紋事와 女性像」, 『고소설연구』 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225~268면.

논문접수일: 2023.11.11. 심사완료일: 2023.12.24. 게재확정일: 2023.12.31.
--

【Abstrac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Jabgi-godam*

kim, kyung*

This paper focuses on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Im-mae's *Jabgi-godam* to examine the reality and cultural background of state examin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Jabgi-godam* consists of a total of 24 episodes, 10 of which are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These stories show the following social structures and political backgrounds related to the state examination.

First, taking for the state examination of classes such as disgraced yangban, bastards, and commoners shows that a livelihood was prioritized over a justification and that the desire for success through the examination tended to be solidified. These tendencies reveal a formation of new values and ethics brought about by the chaos of the status system and a gap between the existing justification of literati-scholars and responses to reality.

Secondly, in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local educatio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Yu Saeng(儒生) and Gyo Saeng(校生)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e stories confirm that a co-writing of an answer sheet among a group of fellow students was accepted in a social atmosphere and a cheating did not disappear, even though laws about the state examination were strengthened resulted from ghostwriting.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examine a culture of the state exa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ers and bastards. Until now, it had been understood only by the perspective of Yangban-Literati. It also identifies that the situation of local applicants beyond just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the state examination centered on a capital city. Therefore,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Jabgi-godam* are meaningful in that the stories allow us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state examination the most extensively.

Keywords: State Examination, Yadam(野談), State Examination Stories, Im-mae(任邁), *Jabgi-godam*(雜記古談), Culture of the State Examination.

* Research Professor, Inst.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